

buddhanews.com

# 안으로 자기 뿌리를 진실로 믿어보세요

## 25면에서 계속

나왔다가 갔다가 나왔다가 이러기만 해요. 그러나 글썽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을 해드려도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질문을 하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저렇게 되는 거 하 어떤 질문을 하셔야 그 뜻이 깊어져서 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걱정없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말이 간단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마음을 태평하고 지혜롭게, 그냥 한 철 사는 데 용렬하게 살지 말자 하고 그렇게 넓게 산다면 병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바둑바둑 쥐고 앵글 쓰기 때문에 몸 망가지죠? 몸 망가지니 그 바둑바둑한 것도 뇌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고 모든 일이 약화가 되고 선한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체 만법을 다, 이 마음 하나만 뿌리와 싹과 동일하게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간다면, 이탈되지 않고 잘 굴러간다면 되는 거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처가 된다는 거, 또 부처님, 역대 조사들, 일체제불이 다 한마음에 접견이 되니까요.

**질문자(여):** 한 3년이라도, 저분이 다만 3년내지 5년이라도 좀더 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원을 가지고 큰스님 시킨 대로 해보겠습니다.

**큰스님:** 그렇게 해보세요. 하하하.

**질문자(여):** 예, 그렇게 하고... 스님,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렇게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일러주셨고 또 진리가 그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짜로 아리송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진짜로 하셔야 되는 거죠. 진실하게 말입니다. 잘만 하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질문자(여):**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선법가를 부를 때 '스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저는 지금 나이는 스물아홉이구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게 '결혼해서 사는 그런 것보다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게 뭐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불교 책을 알게 돼서 '가장 멋있는 인간으로서 살려면 가장 멋있는 것이 출가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런 원을 세우고 스물한 살 때쯤 잠깐 출가해서 살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고민하다가 다시 교회를 한 이 년 정도 다녀왔어요. 그러다가 작년엔 인연이 되어서 선원을 알게 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전에는 항상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너무 사랑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

이 들어서 지금은 요전이나 그런 걸 읽고 관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음속으로 관하는 그런 공부 가 잘 안되고 마음속에 갈등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출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항상 갈등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괴롭거든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요.

**큰스님:** 공부는 출가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걸 떠나서 공부하는 거야. 출가를 한다 하는 것은 가정을 다 버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출가를 하는 것은 가정을 버려야 하고 형제들 부모들 애착을 다 버려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초로 해서 안에 들어와서는 나도 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한 철 살다 가는 건 다 마찬가지로 스님네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공부 한 사람들은 생사윤회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죽고 사는 데만 걸리지 않는다면, 이런 거 있지.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 안 그래요?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 그런데 살아온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갈 자리도 없다 이 소리

를 알아가지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스님:** 자주 오세요. 다 나와 수 있어요.

**질문자(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옛날에 원주에 있을 때에 그, 무슨 병원인가 이런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 병원에 뇌성마비로 애들이 그냥 비비 꼬여서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일러줬어요. 병원 애들 드러누웠는데 우리 손주를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걱정 말라고 그러곤 가서 관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애는 사를 만에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다녀서 가니까 밥도 못 먹던 아이가 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어느만큼 믿었기에, 돌 아니게 믿었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질문자(여):**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절에 공부하러 들어온 지도 얼마 안되고 아직 초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출가한 딸이 서른 세 살인데 한 3년 전에 위 수술을 했는데 그 병이 지금까지 안 나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하는 말이 '어머니, 저같이

지는 게 아니라 얇은 물에 뜨려면 자동적으로 작은 배가 되고 깊은 물에 뜨려면 큰 배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세상 살기가 유유하다 이런 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가 결정적으로 문제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들이 살고 있어도 우주 공간에도 다 우리들의 마음 근본이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멸정처 우주에서도 우리는 하고 있고 또는 은하계 생사처에서도 우리 하나하나가 살고 있고 또 북두칠성 거기에서도 우리는 생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라면 달과 별도 또 해도 물이 아닌 까닭에 우리 지금 살아 나가는 이 진리 속에, 세상 속에 모두가 결부돼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 결부돼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이 만약에 좁쌀 알갱이, 아니 티끌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티끌 하나에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작은 배가 되고 큰 배가 되듯 이렇게 자유자재하다. 이런 법에 의해서 바로 티끌 하나에도 이 우주 삼라만상세계와 더불어 우리 세상도 같이 더불어 하고 있다. 모든 게 이리해서 이

까요. 내가 때로는 말을 잘못하더라도 믿는 것은 진짜로 믿고 하세요. 다 실천적인 얘가지 거짓이 하나도 없는 얘기에요.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실천이란 얘깁니다. 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지장보살이 문고리를 잡고선 아무리 다 들 어보내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해도 그치지 않아서 문고릴 잡고선 영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배워서 자기도 모르게 실천을 옮기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처음 온 분들, 아파서, 처음에는 죄 그래서 모두 오는 분들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얻 어가지고, 즉 믿게 되는 거죠. 자기 주인공을 믿게 되는 거죠. 자기 주인공을 믿으니까 그렇게 낫더라. 그러니까 뭐든지 주인공에만 일임한다면 다 나올 수 있겠구나. 다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업보나 영계성, 유전성 뭐 인과성, 모두가 이렇게 하거나 하면 없 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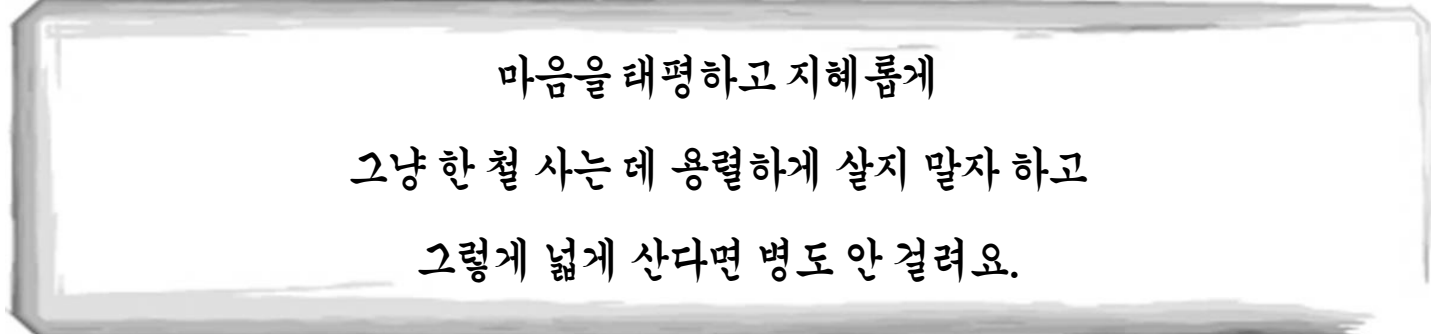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는 데 겁내지 말고 굶어 죽을까봐도 겁내지 말고 잘살지 못할까봐 겁내지 도 말고 우리는 한 철 단생애에 이 도리를 다 무찌르 지 못한다면 세세생생을 얻지 못하고 세세생생을 이렇게 풀어야 하니까요. 때로는 하천세계에 짐승으로도 모습을 갖게 되고, 여자로도 모습을 갖 게 되고 남자로도 모습을 갖게 되고 상세계로는 참, 법신으로서 보살로서 부처로서 이렇게 등등 차원이 주어진다던 말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세생생을 끄달리지 않아도 좋고 끝난 데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한 철이 그렇게 중요해요, 세세생 생을 좌우하니까요. 그러니까 일심해서 하는 사 람들은 속가에서 사는 데의 그 일하고살긴 문제가 다 없으니까 좀 낫죠. 공부하기가 월등 30%, 아마 해는 거죠.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부처도 되시고, 부처라 는 거 없게 아니에요. 이름이 부처가 아니니까요. 약과 선을 흡수해서 돌 아니게 응응한다면 그것 이 평등공법이요, 그 평등공법에서 천차만별로 나가는 갈래갈래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무기 가 되니까요, 보배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만 할까요? 누가 한 것도 아니지 만요. (대중 박수) (법상 앞으로 모시러 나온 스님을 향해) 몸을 들었더니 어머니, 좀. 밥이 풀자마자 금방 일어하면 몸이 안 들잖아, 허허.

**사회자:** 큰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이 감사함을 보답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합시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7년 11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편리하게 생사윤회를 할랑 다 치워 버렸다 이거야. 묻지도 않는 얘기도 다 해주잖아, 내가? 하하하.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기보다도 그것이 다 그냥 내 몸종이가 공해서 없는데, 세상이 여러 가지로 또 공해서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오기는 어디로 왔으며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 것이 있느냐 이 소리야. 그 뜻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 한 철 나는 데에 사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래서 때로는 더 얽매어 놓는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도 이 도리를 공부해 열심히 하면 펼쳐지고, 이러한 것과 같은 거야.

**질문자(여):** 스님, 저는 딸이 7개월 만에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의 딸 좀 어떻게...  
**큰스님:** 우는 힘으로 말씀하세요.

**질문자(여):** 눈물이 나와서 목이 맵니다. 저는 선원에 나온 지 얼마 안됩니다. 책을 보니 많이 공부 안 해도 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7개월 만에 뇌성마비

이렇게 아픈 친구 어머니가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어려움이 다 나왔다. 고 그러면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제 마지막 소원인데 대행 스님께 한번 가서 어머니가 만나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살든지 죽든지 이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오늘 풀게 되고 생각지도 않게 큰스님을 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안됐지만 들어오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얘기한테 용기와 힘을 좀 주십시오.

**큰스님:** 이 부처님의 도리와 진리를 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이 공부를 떠나지 않고 몰려서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꼭, 성불이라고 할까 견성이라고 할까, 성불이라고 해두는 게 좋죠. 성불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얇은 물에 뜨는 배나, 깊은 물에 뜨는 배나,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

를 주어지는 거고 그렇지, 보살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름으로써 주어진 거지 진짜 실천은 힘이 없이 하는 거죠. 힘이 없이 할 줄 아니까 보살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죠. 이름이 주어지면 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몸종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마음 속에서 하는 겁니다. 깊은 마음 속에서 말입니다.

이런 게 있죠. 큰 돌이 있거나 그 돌 밑에 소나무가 있거나 꽃이 있거나 이래도, 그렇게 깊이 있어도 '아, 넌 참 교묘하게 뿌리를 피어서 올라갔구나. 이유 참 얼마나 꼬아서 그 뿌리가 깊이 내릴 수도 없게 그냥 돌 옆을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껴껴 고 대화를 하는 거죠.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도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때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보게도 되고 때로는 하게도 되고 이렇게 만나게도 되고 이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심심할 게 없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대로 심심할 게 없어서 그냥 때로는 지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나가자고 그러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모두 삶의 자유니

##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명품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거나, 수련하기 어렵거나, 그만큼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리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제품의 특징 \***  
영당이 모양의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영당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있는 방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 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음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기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 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플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상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상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제품 사용처**  
선정, 선방, 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식 기반 氣 giban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의)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 DC